

# 중국 장백산 조선족 마을의 주거 형식에 관한 조사연구

## A Surve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nese Housing Form around Mt. Changbaek in China

김 준 봉\*  
Kim, Juneb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ousing form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nese living around Chagbaek mountain in Chinese. The field survey of housing layout and form of houses and interview and observation methods were used with the data which were obtained from literature and statistical materials of Chinese government. Their houses are called Guytle-house and their analysed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housing plans are one room type and they tend to have wide site area, abundant storage spaces and efficient energy saving structure.

키워드 : 조선족, 주거유형, 귀틀집

Keywords : Korean Chinese, Housing Type, Guytle-house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한중 수교 이후 그 동안 정치적 이유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우리 나라와 격리되어 있던 중국 한인 동포의 주거 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리적 제약과 언어적, 기후적 여건 때문에 포괄적이거나 간헐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오지 마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속도로 소멸되어가고

있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우리 전통 민가 유형의 하나인 귀틀집으로만 이루어진 백두산 주변 한인 동포의 마을 전통민가의 주거 문화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건축적 자료를 분석하여 그 형식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와 방법

조사 대상 지역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이도진에 소재한 수전촌과 내두산의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 마을 현황에 대한 기초 문헌자료, 행정 구역상 마을 위치 및 배치 구조 등의 일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전촌 마을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건축 배치, 평면과 인문 조사 등의 정밀한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 정회원, 연변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  
이 연구는 1999년도 주)무영건축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조사 방법은 각 세대별 직접 방문에 의한 세대주와의 면담 조사 및 녹취와 마을 현황 실측 조사, 주거공간 실측 조사, 생활 환경 설문조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기간은 1999년 2월 1일부터 1999년 11월 2일까지 계절별로 8차례에 걸쳐 1회당 2-3일간씩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 2. 조사 대상 지역 개요

### 2.1 안도현

수전촌, 내두촌 등 백두산 주변마을이 위치한 안도현은 중국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해있으며, 남으로 북한에 접하고 있다. 남북 방향 길이는 123공리이고 동서 넓이가 90공리이며 면적은 7,438.19평방공리이다. 서쪽으로 省會인 장춘과 411공리, 동쪽으로 州府 연길시와 66공리 떨어져 있다.

1946년 3월 안도가 분리되어 1949년 7월 명월골로 옮겨지며 그후 두 번 옮겨서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관할 구역에 속한다. 1985년, 안도현은 5개진 8개향, 8개가도, 219개 촌, 293개 屯이 있다. 주민은 46,050호, 194,442명이었다. 그중 농업인구는 24,335호, 109,301명이다. 종족별로는 조선족, 한족, 만족, 회족, 몽고족, 묘족등 6개 민족이 있으며 그중 조선족이 27%, 한족이 71% 이다. 또한 인구 밀도는 평방공리당 26명이다.

안도현에는 명월진, 송강진, 이도진, 양강진, 석문진이 있으며, 이도진은 장백산과 가장 가까운 진이다. 장백산 주변마을도 대개 이도진에 분포되어 있다.

### 2.2 이도진(二道鎮)의 개황

#### 1) 지리적 위치, 지세 및 기후

이도진은 안도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42°01'~128°27', 면적은 1986.95 평방공리이다.

지세는 장백산 북면 경사지로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장백산 주봉우리들은 서남쪽에 있으며 천문봉은 2,670m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장백산 용암대지는 장백산 천지를 중심으로 하고 동심원형으로 낮아지고 물에 씻겨서 골짜기를 이룬다. 산맥은 일반적으로 남북으로 향하고 내두촌 이북으로 완만해지고 있다. 장백산의 두도백하, 이도백하, 내두하 및 사도백하 등이 진내를 경과하는데 물살이 세고 낙차가 크며 이도백하, 내두하 등은 얼지 않는다.

기후는 춥고 습윤하며, 5~9월분 활동기간 저장된 온도는 22.00~24.50℃, 무설기는 95~120일이고 연강수량은 530~550mm이다.

#### 2) 역사적 배경

청조 정부는 직할구의 발상지로 장백산, 천지, 원천 등지를 성지, 신묘로 정하고, 비문을 세우고 금지구역으로 엄격히 명하였다. 광서 34년(1908), 장백부를 관할구로 안도를 설치할 때 신도향에 귀속하였다. 민국 17년에는(1928) 두개 구역이되었고, 1936년에 양강촌에 귀속되었다. 1949년에 육구역(송강)에 편입되었고 1959년에 이도백하 이민공사가 건립되었다. 1982년 11월 13일에 진제로 개편할 때 1983년에 이도진이라 불리게되었다.

#### 3) 행정단위 및 인구분포

이도를 중심으로 11개촌, 12툰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주민은 7,349호에 29,860명이며 그중 조선족이 2,396명, 한족이 26,832명, 그 외 만족, 회족, 몽고족 등 민족이 있다.

#### 4) 경제상황

경작지 면적은 493헥타르이고 그 중 논이 25헥타르이다. 임지는 187,500.9헥타르로서 백하임업국, 장백산 자연보호구 관리국 관할구역이다. 삼림피복율은 94%이며, 자연초지 1561헥타르이다. 광물질 매장량은 부석(浮石)이 가장 많다. 백하 역은 통(화)백(하) 철도를 중점으로 학강-

대련간 선로, 장이도-천지간 선로, 화룡-천지간 선로가 진을 지나가며, 각 촌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부분이 임업 전용이다.

주요 농작물은 콩, 옥수수, 벼, 보리, 수수 등이다. 또한 원삼, 배모 등을 심고 산삼, 위채, 오미자, 산포도. 紅松籽 등을 채집한다. 1985년 진의 기업으로는 삼함수전잠, 이도백하발전소, 내두하발전소, 기계수리공장, 건축공정재, 촌판기업가 82호이다. 대형 차량이 74대, 소, 말 등 대가축이 531마리가 있다. 공농업 총수입은 219.4만원이고 전현농업 총수입의 3%를 차지하여 1980년에 비하여 1.1배 성장했으며 그 중 양식수입은 71.8만원, 총수입의 32.7%를 차지하며, 각종 경영수입은 96.1만원으로 진총수입의

43.8%를 차지하고 진에서 운영하는 기업수입은 51.5만원으로서 진총수입의 23.5%를 차지한다. 일인당 평균수입은 451원으로, 1980년에 비하여 3.37배 증가하였다.

주진 기업단위에는 백하임업국 및 소속된 10개 임장, 장백산 자연 보호국 및 기타 5개 성, 주, 현직속 단위 14개가 있다. 중소학교는 8개교이며, 학생이 1,113명, 소학교 보급율은 91%이다. 경로원이 하나. 문화시설의 8개, 문명촌 한개가 있다. 경내에서 寶馬城 유적지가 있으며 두 개의 항일전쟁 유적지이다. 장백산은 경내 남부에 위치하여 있다.

### 3. 귀틀집의 유래와 형식

#### 3.1 귀틀집의 기원과 분포

귀틀집이란 목재가 풍부한 산간지방에서 화전민들이 많이 지은 집으로 통나무의 양끝에 홈을 파서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서로 엇물리게 포개어 벽체를 만들고 이 위에 지붕틀을 얹어 세운 집이다. 나무와 나무사이의 틈은 진흙으로 발라 메운다. 이 귀틀집은 틀목집, 평안남도 지방에서는 방틀집 또는 목채집이라 부르고, 울릉도에서는 투막집 또는 투방집이라고도 한다.

통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치고 중등만 추린 다음 통나무를 차곡차곡 뉘어 쌓는다. 귀가 어긋나도록 해서 쌓고 적당한 크기로 문을 만들고 창을 만든 후 지붕을 씌우면 통나무집이 된다. 이것을 귀틀집(말집)이라 부른다. 이런 집은 주로 산간에서 무성한 원시림으로 짓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의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과 개마고원 일대와 압록, 두만강 유역 그리고 소백산맥, 차령산맥, 지리산 등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간도와 캅차카, 시베리아, 흑룡강 유역, Yensei강의 상류지역인 Minusimsk Tratars를 비롯한 Altai지방의 여러 종족들이 이 귀틀집에서 살고, Obi강 연안. Ostyak, 티벳, 중국의 운남지방, 미국의 록키산맥, 스칸디나비아 등에도 있다.

Altai 지방에서 귀틀집을 「Yurat」 라고 부른다.

표1. 현재와 과거의 주택소유형태 구분

이름	면적 (평방공리)	림지 면적 (헥타르)	경작지 면적 (헥타르)	인구	비고
이도촌	145.49			21151	장백림업국, 장백산보호국주지
이도		13230	50.6	850	이도백하라고도 부름
백하강촌			7	90	"문화대혁명" 새로성립된 촌
보마촌	79.76	4789	88	1100	보마성이라고도 부름
내두산촌	761.32	74191	100	473	
내두산			85	408	
西屯			15	65	
수전촌	87.9	7337	32	90	속어로 개황대 (開荒隊)라 부름
홍풍촌	30.21	2401	75	505	
투도촌	34.67	232	58	270	서남이라고 부름
장성촌	60.69	5730	22	85	旗杆쪽대기, 혹은 승리라고 부름
安北촌	47.94	4292	22	277	
철북촌				2100	
장백촌			36	436	

\* 내두산과 수전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마을 배치, 주택별 배치도, 평면도, 인문조사가 이루어졌음.

\* 내두산 마을의 현재 상황은 민족간 갈등으로 한족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10여호의 조선족만이 남아있다.

### 3.2 귀틀집의 종류와 특성

중국의 이른바 중원지방에는 전한의 무제때 세운 정한루라는 귀틀집을 흥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즉 이 무렵에는 귀틀집이 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정한루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주석하여 「설문해자」는 「정」(우물정)은 「象構韓形」(이 해석을 「古朝鮮(=韓)의 집을 본딴 구조」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이라 하여 중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른바 동이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틀집이 중원에서 찾아야 할 정도이었다면 그것은 중국건축과는 계통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귀틀집은 두 가지로 지어진다. 하나는 「티벨」이나 「辰韓」에서처럼 단층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鳥拉」에서와 같은 다락집의 형상이다. 이 두 가지 양식이 따로 존재하였다기 보다는 한 지역에 두 가지 모습의 집이 지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쓰임에 따라 집의 형상이 달리 만들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두 가지 귀틀집이 다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에도 이들 두 가지 귀틀집이 있었다. 오두막집형의 다라 귀틀집은 창고나 공공건물로 지어졌고, 단층의 귀틀집은 살림용으로 지어졌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벽화가 있어 유명한 고구려의 구분구조에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고분중에 천장이 귀집이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귀집이 천장은 귀틀집의 지붕구조에서 발달된 것이고 고구려 고분은 그것을 석조화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귀집이 천장은 흑해연안, 「과밀」 고원, 둔황지역과 고조선-고구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귀틀집의 분포가 세계적인 것처럼 귀집이 천장도 세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귀틀집과 가구식이 절충한 형상의 집이 강원도 영월 지방 등과 울릉도에 있다. 귀틀집의 한정된 처마 공간을 좀더 넓게 쓰기 위한 방안에서 이런 절충식이 채택되었겠는데 그것은 귀틀

집에 약점이 있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다. 귀틀집의 약점은 그 구조의 한계성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공간의 증축이 어려웠다. 시대가 발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약점은 사는 사람의 고통이었다.

원래의 귀틀집이 매우 초기적인 성격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이 제약으로 우리나라 귀틀집은 원초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오늘날 산간에 머물러 있다.

### 3.3 장백산 통나무 귀틀집

장백산 주변마을들인 수전촌과 내두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목재가 많아 집은 전부 나무로 되어있는데 벽체는 통나무로 된 귀틀집들이다. 집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옷방과 정지간이 있고 정지간 옆에 헛간이 있다. 방의 넓이는 3m이고 바닥높이는 벽면보다 0.5m 가량 낮다. 집안의 공간 높이는 2m 가량이며 옷방과 정지간 사이는 미닫이로 되어 있으며 부엌은 일반 민가의 부엌과 비슷하다. 출입문의 높이는 1.5m 정도 되어 집으로 들어가자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집의 벽체는 통나무 위에 흙을 바르고 그 위에 회칠을 하기도 한다. 헛간은 통나무를 쌓아서 만들었다. 수전촌의 집들은 앞 뒤 마당이 크고 부속 채들이 많다.

## 4. 장백산 지역 조선족 귀틀집의 건축적 특성

### 4.1 마을 배치

마을의 형성에는 음양풍수설이 고려되고 전통적인 생활풍속과 농업생산에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였다. 마을 배치의 전형적인 지세는 배산임수이다. 마을 뒤에는 높은 산이 있어 겨울에 찬바람을 막을 수 있으며, 앞이 트여 햇볕이 잘 들 수 있는 강변 위에 배치되어 있다.

단위 세대당 대지면적이 타지역 조선족 마을과 비교하여 넓은 저밀도 배치 유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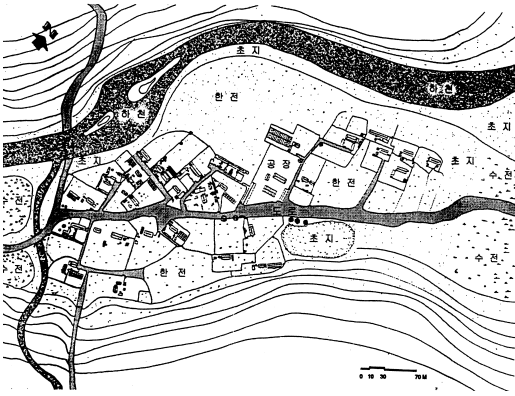


그림 1. 안도현 이도진 수전촌 마을 배치도

#### 4.2 주택의 배치

넓은 대지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뒷밭과 주택동과 더불어 농산물 저장고, 축사, 화장실 등의 부속 시설이 배치된다.

이러한 귀틀집의 배치 특성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혹독한 추위와 바람 등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도난에 대한 대비와 감시의 기능을 고려한 배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방어적 성격이 강한 담장은 가축을 보호하고 도난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며, 축사와 농산물 저장고를 주택동의 전면에 배치하여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면서 감시에 유리한 시야 속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타 지역의 조선족 주거의 배치 유형이 주택동 위주의 구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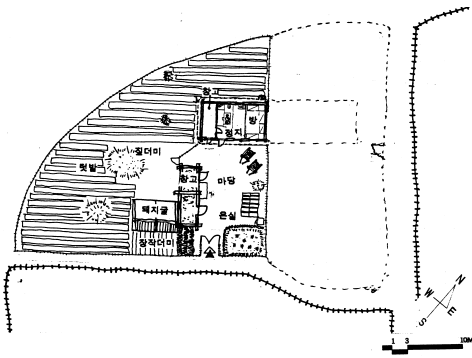


그림 2. 수전촌 최한호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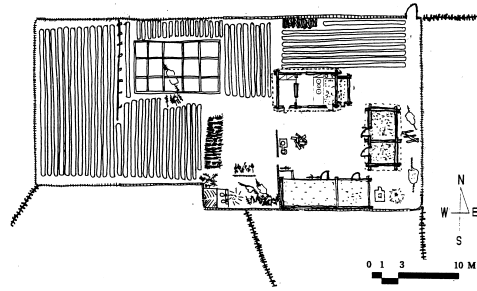


그림 3. 수전촌 최종남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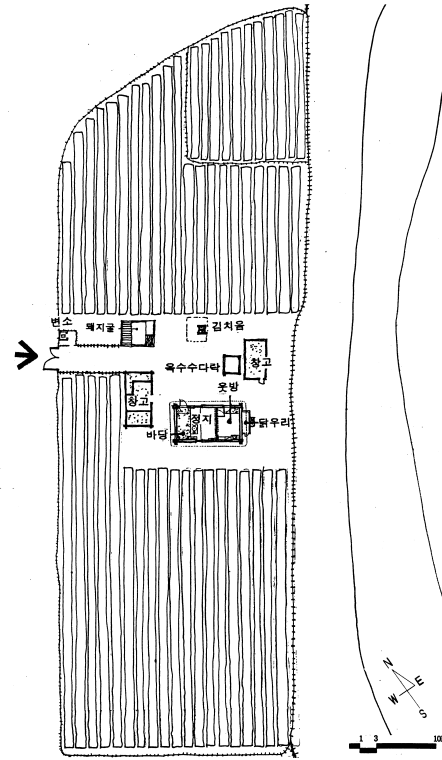


그림 4. 수전촌 최태봉가 배치도

배치임에 비하여 장백산 지역의 조선족 주택은 넓은 대지에 확산형 분산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의 조선족 주택이 그 내용 상에서 봉건적 대가족제도와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설계되어 조선족 주택은 간수가 많고 각 방들은 보통 낮고 좁으며 이층집이나 넓은 방들

은 없었고 간막은 간살이 많아서 집은 평면적으로 퍼지게 되었으나, 이러한 전통적 배치 특성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능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저장의 기능이 중시되어 많은 종류의 창고와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4.3 주택의 평면

귀틀집의 기본 평면은 일실형이다. 즉 취사작업공간과 생활공간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일실공간으로 된 정지로 되어 있다. 조선족 주거 유형 중 방과 부엌의 두 공간으로 분리되는 남부형민가보다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함경도 지역에서 유래한 북부형이 많다.

남부형의 경우에도 면적비에 있어서 정지가 더욱 확대되어 윗방과 고방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능분화가 활발하지 못한 집중적인 평면형식이 주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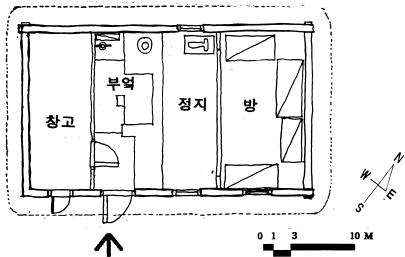


그림 5. 수전촌 최한호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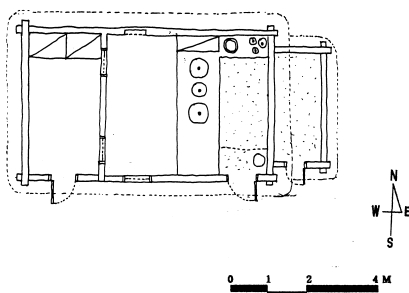


그림 6. 수전촌 최종남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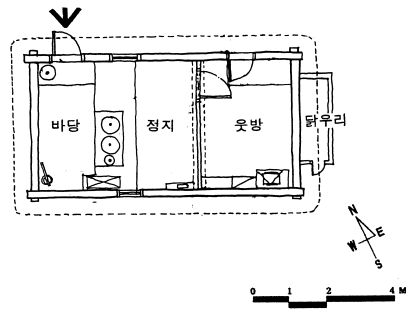


그림 7. 수전촌 최태봉가 평면도

4.4 주택의 단면

보통 바닥과 가마가 설치되어 있는 정지와의 바닥 차이는 30cm정도이므로 따로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국 북부형의 50~70cm가량 바닥차이와 모퉁이에 계단이 2~3단 두는 것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유리한 단면을 흑한에서 지면과 가깝게 정지를 유지시키므로 구성한다고 생각된다.

산 속에 간이로 지은 귀틀집은 지면에서 50cm 정도 낮은 바닥을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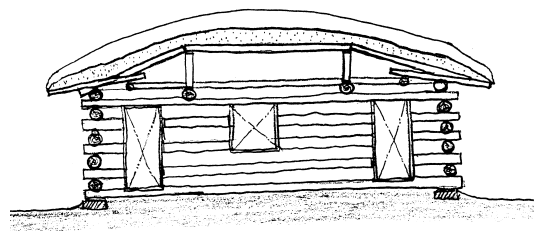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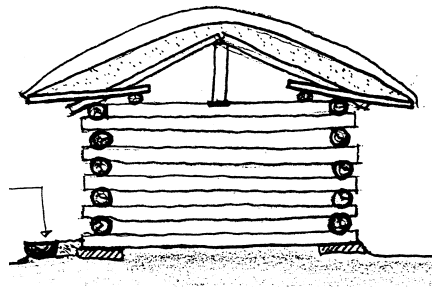


그림 8. 수전촌 박창우가 종횡단면도

4.5 난방 및 취사설비

기본적으로 취사와 난방을 겸한 형식이다. 즉, 정지에 가마는 보통 3~4개를 걸쳐놓는데 그 중 1개는 한쪽 가마인 평가마를 설치하는데, 이는 정지의 뜬 김을 말리는 화로역할을 하고 중국식으로 바뀐 식생활 문화에 적합한 요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을 지피는 부스끼는 한 곳으로만 되어있어 집중된 화력을 한꺼번에 쓰도록 되어 있다. 아궁이는 내부에만 있어 혹한에서의 외부생활을 최소화한다.

혹한과 긴 겨울에 대비하여 연료절감을 위한 원시형태인 수혈주거형식이 잔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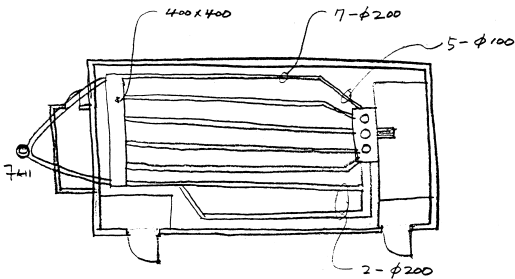


그림 9. 구들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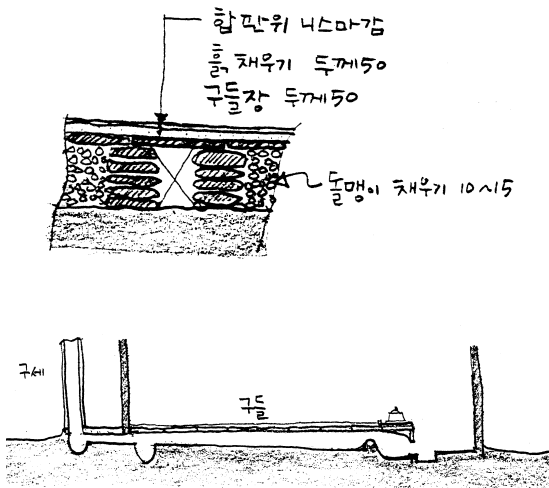


그림 10. 구들 종횡단면도

4.6 구조 및 재료

목재가 풍부한 산간지방에서 지은 집으로 통나무의 양끝에 홈을 파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서로 엮물리게 포개어 못을 사용하지 않고 벽체를 만들고 이 위에 지붕 틀을 얹어 세운다. 나무틈은 흙 바름으로 채운다. 기후적 특성으로 처마깊이가 깊으나 하늘을 향해 들린 형태를 하여 채광에 유리하도록하고 있으며 흙바름으로 단열 보온 성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출입문 입구에 소극적이지만 마루의 형식이 열보이는 빗마루를 설치하여 여름철에 걸터 앉거나 추수에 곡식을 말리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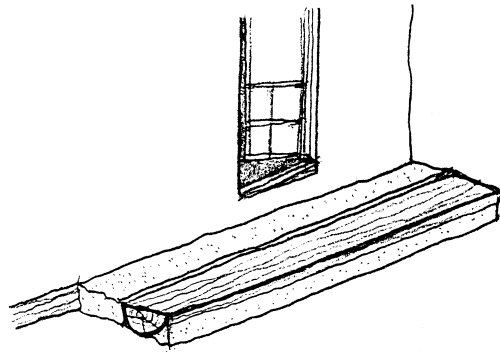


그림 11. 빗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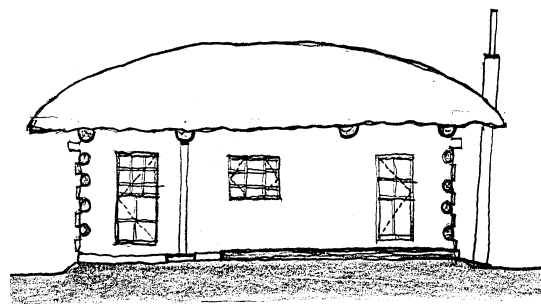


그림 12. 수전촌 박창우가 입면도

#### 4.7 외관 및 의장

목재를 서로 엇물리게 포개어 벽체를 만들고 이 위에 지붕 틀을 얹고 흙 바름으로 채운다. 지붕은 한쪽의 귀틀집이 맞배 지붕 입에 반하여 우진각 지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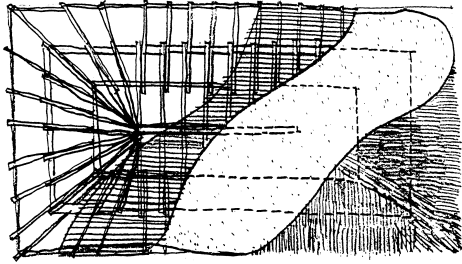


그림 13. 수전촌 박창우가 지붕평면도

#### 4.6 생활상의 특징

주택의 건축재료, 조명, 취난 설비, 취사설비 등으로 인하여 난방설비로서의 온돌과 취사설비로서의 부뚜막을 연결하여 거기에 철제가마를 걸고 나무와 석탄을 때어 음식을 끓이는 동시에 온돌을 덮히는 방법으로 난방도 하고 취사도 하는 것이다.

혹한과 동물의 침입과 도난 등에 대비한 생활방식이 열보이며 특히 긴 겨울에 대비한 충분한 식량 저장고 확보하여 내부에서의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좌식 생활의 주생활양식이 한쪽의 영향을 받아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입식으로 변화하는 일부경향을 보이고 있다.

### 5. 결론

마을 배치의 전형적인 지세는 배산임수이다. 마을 뒤에는 높은 산이 있어 겨울에 찬바람을 막을 수 있으며, 앞이 트여 햇볕이 잘 들 수 있는 강변 위에 배치되어 있다. 단위 세대당 대지

면적이 타지역 조선족 마을 과 비교하여 넓은 저밀도 배치 유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넓은 대지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텃밭과 주택동과 더불어 농산물 저장고, 축사, 화장실 등의 부속 시설이 배치된다. 즉 귀틀집의 배치 특성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혹독한 추위와 바람 등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도난에 대한 대비와 감시의 기능을 고려한 배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축사와 농산물 저장고를 주택동의 전면에 배치하여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면서 감시에 유리한 시야 속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타지역의 조선족 주거의 배치 유형이 주택동 위주의 구심적 배치임에 비하여 장백산 지역의 조선족 주택은 넓은 대지에 확산형 분산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장의 기능이 중시되어 많은 종류의 창고와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귀틀집의 기본 평면은 일실형이다. 즉 취사작업공간과 생활공간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일실공간으로 된 정지로 되어 있다.

조선족주거 유형 중 방과 부엌의 두 공간으로 분리되는 남부형 민가보다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함경도 지역에서 유래한 북부형이 많다. 남부형의 경우에도 면적비에 있어서 정지가 더욱 확대되어 윗방과 고방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능분화가 활발하지 못한 집중적인 평면형식이 주된 형식이다.

바닥과 가마가 설치되어 있는 정지와의 바닥 차이는 30cm정도이므로 따로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국 북부형의 50~70cm가량 바닥차이와 모퉁이에 계단이 2~3단 두는 것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유리한 단면을 흑한에서 지면과 가깝게 정지를 유지시키므로 구성한다고 생각된다. 산 속에 간이로 지은 귀틀집은 지면에서 50cm정도 낮은 바닥을 갖고있다.

기본적으로 취사와 난방을 겸한 형식이다. 즉, 정지에 가마는 보통 3~4개를 걸쳐놓는데 그 중 1개는 한쪽 가마인 평가마를 설치하는데,



이는 정지의 뜬 김을 말리는 화로역할을 하고 중국식으로 바뀐 식생활 문화에 적합한 요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을 지피는 부스끼는 한 곳으로만 되어있어 집중된 화력을 한꺼번에 쓰도록 되어 있다. 아궁이는 내부에만 있어 혹한에서의 외부생활을 최소화한다. 혹한과 긴 겨울에 대비하여 연료절감을 위한 원시형태인 수혈 주거형식이 잔존하고 있다.

목재가 풍부한 산간지방에서 지은 집으로 통나무의 양끝에 흙을 과사 우물 정자 모양으로 서로 엮물리게 포개어 못을 사용하지 않고 벽체를 만들고 이 위에 지붕 틀을 얹어 세운다. 나무 틈은 흙 바름으로 채운다. 기후적 특성으로 처마 깊이가 깊으나 하늘을 향해 들린 형태를 하여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흙바름으로 단열 보온 성능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출입문 입구에 소극적이지만 마루의 형식이 열 보이는 빗마루를 설치하여 여름철에 걸터앉거나 추수에 곡식을 말리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목재를 서로 엮물리게 포개어 벽체를 만들고 이 위에 지붕 틀을 얹고 흙 바름으로 채운다. 지붕은 한쪽의 귀틀집이 맞배 지붕 입에 반하여 우진각 지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좌식 생활의 주생활양식이 한족의 영향을 받아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입식으로 변화하는 일부경향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1. 강영환,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주거공간 및 생활방식”, 한국건축역사연구 5, 1994
2. 강영환,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1)” 한국건축사연구 10, 1996
3. 고도임, “전남 승주지방 전통농가와 주생활의 변천”,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15(1), 1995
4.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 문화, 국제민속박물관학술총서 19, 1996
5.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 : 중국. 통일원, 1996
6. 김동화 외, 연변대학 중국조선족총서편찬위원회, 중국 조선족 연구, 1994
7. 김봉렬,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한국건축역사연구 5, 1994
8. 김성우, “동양 건축에서의 집과 사랑 - 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공간 238, 1987
9. 김숙련 외, 「중국 연변」, 김영사, 1991
10. 김종영 외 3인,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 구성 형태와 그 지역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1호, 1996
11. 지화선, 「조선건축사 I,II,III」, 도서출판 발언사, 1993
12. 박경휘, 「조선 민족사 연구」, 중국 심양 료녕 출판사, 1987
13. 박경휘,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속. 집문당, 1994
14. 성혜숙,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연구분포」 연변대 출판사, 1992